

## 성인여성의 의복가치관과 영향변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lothing Value and Influencing Factors of Women

정수진\* · 최수경\*\*†

Su-Jin Jung\* · Su-Koung Choi\*\*†

진주국제대학교 실크패션학과\*

Dept. of Silk Fashion, Jinju International University\*

마산대학 뷰티케어학부\*\*†

Dept. of Beauty & Care, Masan College\*\*†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body cathexis, need, clothing value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women and to clarify the influence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ody cathexis, and need on the clothing value. For the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436 women in the Kyungnam region. Obtained data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and Scheffé's multiple range for differences in body cathexis, need, clothing value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influence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ody cathexis, and need on the clothing valu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body cathexis, need, clothing value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t. Among these factors, the media contact was proved to be more important on body cathexis, need, clothing value, but the income and occupation status did not have a difference on any subordinate factors of the clothing value.

**Key words** : clothing valu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ody cathexis, need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여성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만족도, 욕구, 의복가치관의 차이를 조사하고, 인구통계적 변인, 신체만족도, 욕구의 변인이 의복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만족도, 욕구, 의복가치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one-way ANOVA분석과 Scheffé검증을 하였으며, 인구통계적 변인, 신체만족도, 욕구의 변인이 의복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20-50

---

† 교신저자 : 최수경(마산대학 뷰티케어학부)

E-mail : csk5257@hanmail.net

TEL : 055-230-1352

FAX : 055-230-1352

대 사이의 성인여성 436명이었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만족도, 욕구, 의복가치관은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특히 미디어접촉도는 신체만족도, 욕구, 의복가치관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수입과 직업유무는 의복가치관의 어떠한 하위변인에서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의복가치관은 인구통계적 변인, 신체만족도, 욕구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의복가치관, 인구통계적 특성, 신체만족도, 욕구

## 1. 서론

산업화와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생활양식이 다양화, 개성화, 고급화되면서 의복은 생활필수품이라기보다는 의복을 통하여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고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옮겨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의복에 대한 소유의 개념이 달라져 자신의 목적이나 취향에 따라 의복을 선택하고 소유하게 되었으며, 의복은 소유물으로써 뿐만 아니라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행복을 증진시키기도 한다[33].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복 중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 선택되어지고, 소중하게 여기는 의복은 개인에 따라 주관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의복은 개인적인 소유물인 동시에 대인관계에서 타인에게 인지되어지는 대중적인 소유물이기도 하다. Ryan[43]에 의하면 의복은 개인의 연령이나 성, 직업, 사회경제적인 지위, 역할, 가치관, 태도, 그리고 성격을 표현해 주는 단서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많은 학자들은 의복의 사회심리적인 측면을 중요시하였으며, 의복행동을 하는 단위가 개인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개인적인 영향요인이 되는 인구통계적 변인은 물론 인간내부의 영향요인인 심리적 특성도 아울러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의복의 스타일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결정되어 그 시대의 이상적인 신체모습을 나타낸다. 개인의 신체를 보는 방법이나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기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즉 개인은 사회적 이상을 내면화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고, 이상적인 신체모습과 자신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복이 갖고 있는 기능을 통해 자신을 변화하고 향상시키도록 동기화한다[36]. Sontag & Schlater[45]는 의복과 관련된 자아개념 요소 중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요소가 신체만족도라고 밝히고, 신체만족과 불만족은 의복으로 옮겨져서 자아존중에 영향을 미치므로 의복은 신체불만족을 보상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어떤 가치를 내면화한 상태에서 행하는 의복행동은 욕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의복행동은 욕구에 의해서 특징지워질 수 있고, 동시에 가치지향을 반영하게 된다[30]. Summer[46]는 욕구와 가치관간의 관계를 인정하였으며, 강경자와 서영숙[3]은 가치관이 인간의 욕구와 환경에 따라 변한다고 하여 욕구나 환경이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의복행동의 선택준거가 되는 의복가치관에 개인적인 영향요인인 인구통계적 변인과 심리적 측면인 신체만족도 및 욕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는 현재 성인여성의 내적 특성과 감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의상심리를 연구하는 영역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만족도, 욕구, 의복가치관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인구통계적 변인, 신체만족도, 욕구 가 의복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 2. 이론적 배경

### 2.1 의복가치관

가치관은 학문적인 영역이나 사용범위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개인의 행동양식을 결정해주는 하나의 기준으로 인간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 때문에 선택가능한 많은 행위 중에서 특정 대상이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Lapitsky[37]에 의하면 의복가치관은 의복의 선택과 착용에 관련된 태도나 행동을 유발하는 흥미, 관심, 목표, 동기라고 정의된다.

이인자[21]는 의복의 가치와 관련하여 젊은 여성일수록 미적가치가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경제적이고 감각적인 가치를 중시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심미적가치를 중요시하며,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두는 가치는 낮다고 하였다[1]. 이선재[17]는 직업여성과 비직업여성의 의복에 대한 가치관에서 직업여성이 비직업여성보다 사회적 가치를 더 중요시한다고 하였다. 박혜정과 김혜정[11]은 광고에 표현된 문화가치와 소비자의 의복소비가치를 비교한 결과 기능성추구, 긍정적 감정추구, 유행지향, 자기이미지추구, 사회적 적합성추구, 사회적 성공추구, 개성추구, 외모추구가치가 도출되었다. 이들 의복소비가치요인을 기준으로 패션잡지 광고가치를 통해 표현된 문화가치는 사회적 성공추구가치와 유행지향가치가 가장 많이 표현되었으며, 기능성 추구가치는 어떤 유의차이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경복[23]은 인구통계적 변인이 각 의복소비가치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결과 연령은 감정적, 진귀적 가치에, 수입은 감정적, 진귀적,

상황적 가치에, 학력은 감정적 가치, 결혼여부는 상황적 가치, 도시규모는 감정적, 진귀적, 사회적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경아와 유태순[14]의 연구에서는 물질적 가치수준이 높은 집단은 의복의 심미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선[20]은 고등학생의 사회적 가치관을 외래풍조, 금전만능, 개인주의, 매스컴으로 분류하여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금전만능과 외래풍조의 수용이 높을수록 의복유행을 중요시하였고 정숙성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와 의복 및 신체태도와 의 관계를 분석한 전용민과 이명희[26]의 연구를 보면 청소년들은 물질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의복이나 신체장식을 통해 적극적인 외모향상행동을 하며, 소외의식이 많을수록 체중관심은 높았으나 외모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또한 용돈의 많으면 성형, 머리손질, 화장 등의 신체장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즉 청소년들의 용돈이나 물질주의 가치관, 소외의식은 외모장식이나 체중조절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박광희[8]는 18세 이상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가치지향집단은 소극적 가치추구형, 적극적 가치추구형, 자기성취형, 사회지향형의 네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적극적 가치추구형 집단이 유행선도력, 쇼핑의 즐거움, 상표충성도, 수입의류브랜드 구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박혜원 외[10]는 개인지향가치보다 사회지향가치가 의복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개인적, 사회적으로 진취적인 가치관을 지닌 집단이 의복행동과 의복구매행동을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치관은 의류소비시장을 세분화하는 유용한 변수임을 입증한다고 보았다.

### 2.2 욕구와 신체만족도

모든 행동은 개인의 환경을 지각하면서 그 환경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행동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무의식적이거나 부분적으로만 의식되는 욕구에 의해서도 생기는 것이다[42].

Maslow[41]는 하나의 욕구가 행동을 유발하는 유일한 동기는 아니며 어떤 행동은 여러 욕구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 욕구가 행동동기로 나타날 때 욕구의 강도에 따른 순서는 생리적, 안전, 소속과 애정, 자기존중, 자아실현 욕구의 위계로 분류하고 후에 인지, 미의 욕구를 부가하였다. 그러나 Hersey & Blanchard[35]는 Maslow의 욕구위계설에 의거하여 현대인에게 적합한 욕구위계구조를 제시하고 소속 욕구와 자아실현 욕구가 오늘날 가장 중요한 욕구이며 자존 및 안전 욕구가 그 다음의 욕구라고 하여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욕구의 강도와 그 우세도가 소비자 행동에서 그대로 표현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욕구는 개인의 행동을 일으키고 그 행동은 유기체-환경상태가 욕구를 충족시킬 때까지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강경자[2]의 연구에서 의복의 정숙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생리적 욕구는 높지만 신체적, 감정적 손해를 보게 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는 욕구와 자신이 존중받거나 자기를 성취하려는 욕구는 낮았으며, 연령이 높고 월수입이 낮을수록 그리고 TV나 신문 여성지에 대한 접촉도가 낮고 도시보다 농촌에서 성장한 사람일수록 정숙한 측면을 중시하였다. 반면에 심미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의복을 통해 미를 추구하고, 자기를 실현하려는 욕구가 높았으며, 월수입이 높고 TV나 신문, 여성지 등의 미디어 접촉을 통해 정보를 추구하는 여성들이 의복에서 미적 표현을 강조하였다. 전경란[25]은 과시욕구와 지배욕구가 높을수록 의복 착용시 성적매력성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과시욕구와 지배욕구 및 사회계층이 높고 성취 욕구가 낮을수록 의복 착용시 유행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과시욕구와 지배욕구 및 성취욕

구가 높을수록 개성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성취욕구와 과시욕구, 자아존중감 및 지배욕구가 높을수록 심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의복태도에는 욕구가 매우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신체만족도는 신체의 여러 부분이나 신체기능에 대한 만족 혹은 불만족의 정도로 정의되는데 [44],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

Creekmore[32]는 의복사용과 신체불만에 대한 고등학교 청소년의 성차에서 남성들보다 여성이 신체에 더 불만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Mclean[39]은 넓은 연령층(20-89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와 관계를 연구한 결과 신체만족도에 있어서 체형이 표준체형으로부터 이탈되었을 때 각 신체 부위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신체만족도가 낮은 연령층은 가장 젊은 두 집단에서 나타났다. 이영운과 강혜원[19]은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는 유행관심 및 유행스타일 선호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어 자신의 신체에 만족할수록 유행 관심이 높았으며, 당시의 유행스타일을 더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명희[16]는 주로 신체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의복의 심미성과 주의집중성을 중요시하였고, 신체만족도가 낮은 사람은 의복을 통해 여유있고 편안한 맛음새와 드러나지 않는 실루엣을 만들어 감으로써 자신의 불만족스런 실제 신체를 인식하지 않으려는 것이라 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신체에 대한 회피행동이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가지려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체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의복디자인과 유행, 의류 및 액세서리 구매, 의류 계획이나 정리에 흥미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신체만족도는 의복만족도, 유행관심 및 유행스타일 선호와 정적인 상관관계라 할 수 있다[7]. 이연희[18]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행선도력과

의복만족도, 신체만족도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유행선도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의복과 신체에 만족함을 밝혀내었고, 송경자[12]는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인 집단이 유행에 관심이 많고 심리적으로 의복에 더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며 또한 의복을 통한 과시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규명하였다. Ford & Drake[34]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또한 의복에 대한 세련됨과 신체만족도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사람은 신체에 대한 자신감으로 의복에 대해 더 많은 욕구를 갖게 되며 긍정적인 신체적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의복을 중요하게 여기고 소유하고 있는 의복 및 의복생활에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13, 38].

### 3. 연구방법

#### 3.1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변인으로 연령, 결혼 여부, 학력, 직업유무, 가계소득을 조사하였다. 연령은 20대, 30대, 40대 이상으로 나누었으며, 결혼 여부는 미혼과 기혼으로 나누어 사별과 이혼 등 기타로 분류된 집단을 기혼으로 간주하였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에서 대학원 졸업에 이르기까지 7단계로 분류하였다. 직업유무는 유와 무로 나누었으며, 가계소득은 100만원 이하에서 501만원 이상까지 6단계로 분류하여 응답케 하였다. 미디어 접촉도는 잡지, 카탈로그, TV나 라디오, 신문, 인터넷에 대한 5개의 문항으로 측정방법은 5단계 리커트법으로 측정하였다. 미디어접촉도의 각 변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그 특성이 높은 것으로 해

석되며, 낮은 집단/높은 집단으로 나누는 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중앙값을 기준으로 양분하였다. 신체만족도 측정은 Secord & Jourard[44]에 의해 개발된 46개 원 척도 중 Mahoney & Finch[40]가 23개의 신체만족도 항목을 수정한 것을 본 연구에서 21개(다리, 허벅지, 다리모양, 무릎, 얼굴, 머리색, 얼굴특징, 눈, 코, 이, 목소리, 신장, 다리길이, 발길이, 전체몸무게, 허리사이즈, 엉덩이사이즈, 가슴둘레, 목사이즈, 근육의 강도, 육체미)의 항목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5점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1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신체 차원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신체만족도의 23개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욕구 척도는 Maslow[41]의 욕구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7개의 욕구변인인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 자기존중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인지 욕구, 미 욕구를 진단하기 위한 3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5단계로 평가되었다. 매우 그렇다의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까지로 측정된 점수의 합을 욕구의 정도로 보고 점수가 높을수록 욕구가 강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척도는 선행연구들[2, 30]이 사용한 척도를 전문가 집단(교수, 대학원생)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욕구의 순위별 Cronbach's  $\alpha$ 수는 각각 .501, .553, .679, .592, .514, .607, .663으로 나타났다.

의복가치관 척도는 8가지 상대적 의복가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작성한 Creekmore[31]의 "Measure of Eight Clothing Values"(Part I과 Part II)를 번안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Part I의 56문항만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2가지 가치관을 나타내는 두 항목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두 항목쌍(a-b)의 상대적인 중요도 정도에 따라 3-0(a가 아주 그렇다), 2-1(a가 그렇다), 1-2(b가 그렇

다), 0-3(b가 아주 그렇다)을 평정척도상에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복가치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3.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0대가 308명(71.3%), 30대가 76명(17.6%), 40대 이상이 48명(11.1%)이었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323명(74.2%), 기혼이 111명(25.6%)이었다. 학력은 고졸이하가 47명(10.8%), 대학재학이 275명(63.4%), 대졸이상이 112명(25.8%)으로 대학재학에 해당하는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유무는 무가 285명(68.7%), 유가 130명(31.3%)으로 직업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의 분포가 높았다. 가계소득은 100만원이하가 62명(15.1%), 101-200만원이 102명(24.8%), 201-300만원이 117명(28.5%), 301-400만원이 76명(18.5%), 401만원이상이 54명(13.1%)으로 201-300만원이 가장 많았고, 101-200만원, 301-400만원, 100만원이하, 401만원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접촉도는 낮은 집단이 223명(51.4%), 높은 집단이 211명(48.6%)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20대-50대사이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2005년 11월말-12월말 사이에 실시하여 총 500부를 배부하였으며, 응답이 미비한 것을 제외시킨 43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3.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SAS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욕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으며, 인구통계적변인에 따른 신체만족도, 욕구, 의복가치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Scheffé검증을 사용하였고, 인구통계적 변인, 신체만족도, 욕구가 의복가

치관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만족도, 욕구, 의복가치관의 차이

연령, 결혼여부, 학력, 수입, 직업유무, 미디어접촉도에 따른 신체만족도, 욕구, 의복가치관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과 Scheffé검증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1-6과 같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표 1에서 살펴보면 신체만족도, 욕구에서 안전의 욕구와 인지의 욕구, 의복가치관에서 이론적가치관, 정치적가치관, 탐구적가치관, 종교적가치관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신체만족도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30대, 40대 이상, 20대 순으로 신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대는 외모관심이 높고 미적 감각과 기대수준이 높은 시기이므로 자신의 이상적 체형에 대한 기대에 현실이 못 따라감으로써 발생하는 불만감이 있다고 본 전경란[25]의 견해와 일치한다. 그러나 40대가 30대보다 신체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연령이 높다고 하여 반드시 신체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욕구는 안전의 욕구와 인지의 욕구에서  $p < .05$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안전의 욕구는 40대 이상, 30대, 2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나 연령이 높으면 사건, 자연, 재정적 불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감정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년기 여성들이 안전 위주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김용숙[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인지의 욕구는 40대 이상, 30대, 2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나 연령이 높으면 필요한 지식이상의 것을 알고 이해하고 체계화하고 설명하려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가치관은 이론적가치관과 탐구적가치관에서  $p<.05$ 수준으로, 정치적가치관과 종교적가치관에서  $p<.01$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론적가치관은 30대, 40대 이상, 2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나 30대가 의복이 이용되거나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려는 가치관이 높았다. 정치적가치관과 종교적

표 1. 연령에 따른 신체만족도, 욕구, 의복 가치관의 차이

	20대		30대		40대이상		F
	M	SD	M	SD	M	SD	
신체만족도	2.92 <sup>a</sup>	.65	3.13 <sup>a</sup>	.53	2.93 <sup>a</sup>	.49	3.521 <sup>*</sup>
생리적	2.93	.62	2.89	.50	2.94	.62	.125
안전	2.46 <sup>c</sup>	.62	2.72 <sup>b</sup>	.59	2.96 <sup>a</sup>	.52	17.660 <sup>**</sup>
소속	2.35	.68	2.18	.59	2.28	.48	2.401
욕구							
자기존중	2.47	.62	2.48	.52	2.35	.52	.946
자아실현	2.73	.59	2.83	.59	2.68	.61	1.024
인지	2.32 <sup>b</sup>	.59	2.48 <sup>ab</sup>	.64	2.59 <sup>a</sup>	.68	5.365 <sup>**</sup>
미	2.48	.69	2.40	.59	2.63	.64	1.702
이론적	1.22 <sup>a</sup>	.27	1.30 <sup>a</sup>	.27	1.28 <sup>a</sup>	.27	3.060 <sup>*</sup>
심미적	1.70	.30	1.74	.30	1.62	.31	2.270
경제적	1.58	.30	1.55	.29	1.59	.31	.236
정치적	1.29 <sup>a</sup>	.39	1.18 <sup>ab</sup>	.38	1.11 <sup>b</sup>	.48	5.672 <sup>**</sup>
의복							
사회적	1.43	.25	1.41	.27	1.51	.38	2.141
탐구적	1.81 <sup>a</sup>	.33	1.75 <sup>ab</sup>	.41	1.66 <sup>b</sup>	.32	4.442 <sup>*</sup>
감각적	1.59	.32	1.62	.37	1.70	.33	2.641
종교적	1.37 <sup>b</sup>	.28	1.44 <sup>ab</sup>	.35	1.55 <sup>a</sup>	.37	8.026 <sup>**</sup>

\*:  $p<.05$  \*\*:  $p<.01$

가치관은 40대 이상, 30대, 2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나 반면 탐구적가치관은 20대, 30대, 40대 순으로 나타나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는 연령이 높은 사람은 의복을 이용하여 지위나 영향력 또는 도덕적인 상징, 종교적인 의미를 나타내려고 하는 가치관이 높게 작용하고, 연령이 낮은 사람은 의복의 원료나 재료를 실험적 재료로 인식하거나 평가하는 가치관이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표 2. 결혼여부에 따른 신체만족도, 욕구, 의복 가치관의 차이

	미혼		기혼		t
	M	SD	M	SD	
신체만족도	2.92	.65	3.07	.50	-2.240 <sup>*</sup>
생리적	2.93	.61	2.89	.58	0.611
안전	2.46	.62	2.83	.58	-5.523 <sup>**</sup>
소속	2.35	.69	2.21	.53	2.134 <sup>*</sup>
욕구					
자기존중	2.46	.61	2.44	.54	0.317
자아실현	2.75	.60	2.71	.59	0.658
인지	2.32	.58	2.56	.66	-3.657 <sup>**</sup>
미	2.45	.67	2.57	.66	-1.577
이론적	1.24	.28	1.27	.26	-1.055
심미적	1.71	.31	1.67	.29	1.146
경제적	1.58	.30	1.56	.29	0.711
의복					
정치적	1.27	.40	1.19	.41	1.812
사회적	1.42	.25	1.48	.32	-1.720
가치관					
탐구적	1.81	.34	1.71	.37	2.496 <sup>*</sup>
감각적	1.60	.32	1.64	.35	-1.036
종교적	1.37	.30	1.49	.31	-3.628 <sup>**</sup>

\*:  $p<.05$  \*\*:  $p<.01$

표 3. 학력에 따른 신체만족도, 욕구, 의복 가치관의 차이

	고졸이하		대재		대졸이상		F
	M	SD	M	SD	M	SD	
신체만족도	2.97	.68	2.95	.62	3.00	.47	.063
생리적	2.93	.69	2.91	.60	2.96	.45	.073
안전	2.79 <sup>a</sup>	.58	2.53 <sup>a</sup>	.64	2.44 <sup>a</sup>	.44	3.828 <sup>*</sup>
소속	2.28	.63	2.33	.66	2.09	.46	1.124
욕구							
자기존중	2.43	.61	2.47	.59	2.38	.61	.230
자아실현	2.71	.66	2.74	.59	2.85	.42	.359
인지	2.47	.69	2.36	.66	2.54	.65	1.269
미	2.57	.73	2.48	.60	2.18	.50	2.231
이론적	1.25 <sup>a</sup>	.24	1.23 <sup>a</sup>	.27	1.43 <sup>a</sup>	.26	4.246 <sup>*</sup>
심미적	1.62	.32	1.71	.30	1.76	.36	2.293
경제적	1.53	.36	1.58	.28	1.60	.36	.560
의복							
정치적	1.20 <sup>a</sup>	.44	1.27 <sup>a</sup>	.39	.97 <sup>b</sup>	.54	5.036 <sup>**</sup>
가치관							
사회적	1.53 <sup>a</sup>	.30	1.42 <sup>a</sup>	.27	1.38 <sup>a</sup>	.27	3.338 <sup>*</sup>
탐구적	1.72	.39	1.80	.35	1.68	.37	1.627
감각적	1.65	.28	1.60	.33	1.75	.40	2.078
종교적	1.51 <sup>a</sup>	.35	1.39 <sup>a</sup>	.29	1.45 <sup>a</sup>	.46	3.624 <sup>*</sup>

\*:  $p<.05$  \*\*:  $p<.01$

표 4. 수입에 따른 신체만족도, 욕구, 의복가치관의 차이

	100만원		101~		201~		301~		401만원		F
	이하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상		
	M	SD	M	SD	M	SD	M	SD	M	SD	
신체만족도	2.95	.67	2.87	.55	2.91	.60	3.06	.58	3.17	.68	2.860 <sup>*</sup>
생리적	3.01	.55	2.96	.56	2.94	.67	2.87	.57	2.80	.62	1.222
안전	2.58	.68	2.57	.58	2.52	.67	2.56	.60	2.61	.66	.188
소속	2.57 <sup>a</sup>	.75	2.37 <sup>ab</sup>	.58	2.24 <sup>b</sup>	.60	2.21 <sup>b</sup>	.58	2.22 <sup>b</sup>	.78	3.831 <sup>**</sup>
자기존중	2.62	.67	2.48	.45	2.38	.56	2.42	.57	2.51	.80	1.830
욕구											
자아실현	2.74	.59	2.71	.52	2.78	.62	2.66	.55	2.83	.75	.873
인지	2.67	.79	2.47	.56	2.39	.61	2.47	.66	2.53	.81	1.933
미	2.48	.68	2.42	.53	2.31	.57	2.32	.62	2.45	.79	1.256
이론적	1.26	.28	1.28	.28	1.23	.27	1.23	.28	1.19	.24	1.040
심미적	1.69	.28	1.68	.32	1.71	.32	1.70	.29	1.75	.30	.487
경제적	1.58	.29	1.60	.30	1.59	.31	1.55	.29	1.53	.31	.704
의복											
정치적	1.27	.37	1.24	.39	1.24	.39	1.25	.45	1.30	.43	.242
가치관											
사회적	1.41	.24	1.42	.28	1.44	.25	1.49	.31	1.38	.26	1.366
탐구적	1.80	.35	1.79	.37	1.76	.33	1.78	.35	1.82	.39	.317
감각적	1.61	.34	1.61	.31	1.62	.33	1.61	.30	1.62	.37	.019
종교적	1.38	.26	1.39	.34	.41	.30	1.39	.33	1.41	.32	.201

\*: p<.05    \*\*: p<.01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를 표 2에서 살펴보면 신체 만족도, 욕구에서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인지의 욕구, 의복가치관에서 탐구적가치관과 적가치관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신체만족도는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혼보다 기혼이 신체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기혼인 여성은 배우자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으로 인해 형성된 가족관계, 자녀문제, 경제적 사정 등 더 이상 본인만이 아닌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미혼보다 신체에 대한 만족정도가 까다롭게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욕구는 안전의 욕구와 인지의 욕구에서 p<.01수준으로, 소속의 욕구에서 p<.05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안전의 욕구와 인지의 욕구는 기혼이, 소속의 욕구는 미혼이 높게 나타났다. 즉 기혼은 사건, 자연, 재정적 불행으로 인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와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을 나타내는 욕구가 강하였고, 미혼은 소속집단 속에 포함되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욕구가 높았다. 의복가치관은 탐구적가치관에서 p<.05수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탐구적가치관은 미혼이 높게 나타난 반면 종교적가치관은 기혼이 높게 나타나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즉 미혼은 의복의 원료나 재료를 실험적 재료로 인식하거나 평가하는 가치관이 높아 새로운 유행이나 옷차림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이고, 기혼은 의복을 통해서 도덕적인 상징이나 종교적인 의미를 나타내려는 가치관이 높기 때문에 의복으로 인해 품위와 정숙성을 나타내려는 의식이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표 3에서 살펴보면 욕구에서 안전의 욕구, 의복가치관에서 이론적가치관, 정치적가치관, 사회적가치관, 종교적가치관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욕구는 안전의 욕구에서 p<.05수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고졸이하, 대재, 대졸이상의 순으로 나타나 학력이 낮은 여성은 불안감에서 벗어나려는 안전의 욕구가 높게 나타난다고 한 선행연구[3, 30]의 결과를



신지해 준다. 이는 학력이 낮은 사람은 신체적, 감정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복가치관은 이론적가치관, 사회적가치관, 종교적가치관에서  $p < .05$ 수준으로, 정치적가치관에서  $p < .01$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론적가치관은 대졸 이상이, 정치적가치관은 대학재학생

표 5. 직업유무에 따른 신체만족도, 욕구, 의복가치관의 차이

	무		유		t	
	M	SD	M	SD		
신체만족도	2.91	.65	3.06	.55	-2.173*	
욕구	생리적	2.94	.64	2.85	.53	1.359
	안전	2.49	.64	2.68	.58	-2.990**
	소속	2.33	.68	2.23	.58	1.372
	자기존중	2.47	.63	2.41	.48	1.005
	자아실현	2.75	.60	2.69	.59	1.045
	인지	2.35	.62	2.40	.56	-0.839
	미	2.48	.71	2.45	.54	0.457
의복 가치관	이론적	1.23	.27	1.25	.28	-0.624
	심미적	1.70	.30	1.71	.31	-0.243
	경제적	1.59	.29	1.54	.29	1.643
	정치적	1.26	.40	1.24	.41	0.543
	사회적	1.43	.26	1.43	.31	-0.016
가치관	탐구적	1.79	.34	1.78	.37	0.231
	감각적	1.60	.31	1.62	.36	-0.691
	종교적	1.39	.29	1.43	.34	-1.111

\*:  $p < .05$  \*\*:  $p < .01$

이, 사회적가치관과 종교적가치관은 고졸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낮은 여성일수록 의복을 통하여 종교적인 가치를 많이 부여한다는 강경자와 서영숙[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수입에 따른 차이를 표 4에서 보면 신체만족도와 욕구에서 소속의 욕구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수입은 다른 변인에 비해 그다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신체만족도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401만원 이상, 301-400만원, 100만원 이하, 201-300만원, 101-200만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경제수준이 높으면 자신의 신체에 좀 더 만족한다는 이영윤과 강혜원[19]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즉 대체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신체만족도가 높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신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표 6. 미디어접촉도에 따른 신체만족도, 욕구, 의복가치관의 차이

	낮음		높음		t
	M	SD	M	SD	
신체만족도	2.86	.53	3.04	.68	-3.098**
생리적	2.91	.59	2.92	.62	-2.15
	2.52	.59	2.59	.66	-1.312
	2.29	.60	2.33	.70	-666
욕구	2.37	.55	2.54	.62	-2.918**
	2.68	.58	2.80	.60	-2.016*
	2.35	.58	2.40	.64	-926
미	2.45	.63	2.51	.70	-1.084
	1.23	.26	1.25	.28	-893
	1.68	.31	1.73	.29	-1.774
의복 가치관	1.64	.32	1.52	.26	4.335**
	1.20	.42	1.30	.38	-2.442*
	1.45	.29	1.42	.26	1.461
가치관	1.72	.35	1.85	.34	-3.932**
	1.65	.36	1.57	.30	2.361*
	1.44	.32	1.37	.29	2.465*

\*:  $p < .05$  \*\*:  $p < .01$

볼 수 있다. 소속의 욕구는  $p < .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만원 이상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소득이 적으면 집단속에 포함되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소속의 욕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에 따른 차이를 표 5에서 보면 신체만족도, 욕구에서 안전의 욕구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신체만족도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직업이 있는 사람이 직업이 없는 사람보다 신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취

업여성이 비 취업 여성보다 신체만족도가 높다고 한 전경란[25]의 연구와 일치한다. 안전의 욕구는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직업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안전의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미디어접촉도에 따른 차이를 표 6에서 살펴보면 신체만족도, 욕구에서 자기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의복가치관에서 경제적가치관, 정치적가치관, 탐구적가치관, 감각적가치관, 종교적가치관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의복가치관에서 다른 변인보다 많은 차이를 보였다. 신체만족도는  $p<.01$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신체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미디어에 접촉하는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상적인 신체를 추구할 때 마른 형을 선호하기 때문에[24] 매스미디어나 패션쇼에서 대부분 마른 여성들이 모델로 활동하고, 또한 미적 기준이 되고 있어 TV나 잡지, 인터넷 등 매체 접촉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체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송경자[12]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신체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많은 미디어접촉을 통해 유행에 관한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하여서 본인에게 어울리고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패션을 연출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욕구는 자기존중의 욕구에서  $p<.05$ 수준으로, 자아실현의 욕구에서  $p<.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미디어접촉도가 높으면 자기존중의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미디어접촉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자신이나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어하고, 자기의 재능에 가장 잘 맞는 일을 하려는 욕망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의복가치관은 경제적가치관과 탐구적가치관에서  $p<.01$ 수준으로, 정치적가치관, 감각적가치관, 종교적가치관에서  $p<.05$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미디어접촉도가 낮으면 경제적가치관, 감각적가치관, 종교적가치관이 높

게 나타났고, 미디어접촉도가 높으면 정치적가치관, 탐구적가치관이 높게 나타났다.

#### 4.2 인구통계적 변인, 신체만족도, 욕구 가의복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성인여성의 인구통계적 변인, 신체만족도, 욕구가 의복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이론적가치관에는 인지의 욕구( $\beta=.366, p<.01$ )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으로 미의 욕구( $\beta=-.131, p<.01$ )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 두 변인의 설명력은 9.9%였다. 인구통계적 변인과 신체만족도는 이론적가치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인지의 욕구가 높고 미에 대한 욕구가 낮으면 이론적가치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적가치관은 미디어접촉도( $\beta=.098, p<.05$ )와 자아실현의 욕구( $\beta=.155, p<.01$ )가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생리적 욕구( $\beta=-.191, p<.01$ )와 소속의 욕구( $\beta=-.166, p<.01$ )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7.4%였다. 따라서 미디어접촉도와 자아실현의 욕구가 높고 생리적, 소속의 욕구가 낮은 사람은 미를 중시하여 아름다운 옷을 추구하고 높이 평가하는 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가치관은 미디어접촉도( $\beta=-.206, p<.01$ ), 신체만족도( $\beta=-.101, p<.05$ ), 미의 욕구( $\beta=-.167, p<.01$ )가 부정적 영향을 주었고, 생리적 욕구( $\beta=.244, p<.01$ )가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13.6%였다. 미디어접촉도, 신체만족도, 미에 대한 욕구가 낮고 생리적 욕구가 높으면 의복을 선택하고 착용함에 있어 시간이나 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가치관에는 연령( $\beta=-.177, p<.01$ ), 학력( $\beta=-.094, p<.01$ ), 생리적 욕구( $\beta=-.354, p<.01$ )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디어접촉도( $\beta=.137, p<.01$ ), 자기존중의 욕구( $\beta$

=.194, p<.01), 미의 욕구( $\beta=.152, p<.01$ )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21.8%로 나타났고, 의복가치관 중 가장 많은 변인이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연령, 학력, 생리적 욕구가 낮고 미디어접촉도, 자기존중의 욕구, 미의 욕구가 높으면 의복을 이용하여 지위나 영향력을 나타내려는 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가치관은 학력( $\beta=-.130, p<.01$ )만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학력이 낮으면 의복을 통해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사회적가치관이 높았고, 이 변인의 설명력은 1.7%였다.

탐구적가치관에는 연령( $\beta=-.100, p<.05$ ), 생리적 욕구( $\beta=-.191, p<.01$ ), 안전의 욕구( $\beta=-.126, p<.01$ )가 부적 영향을, 미디어접촉도( $\beta=.14p<.01$ )가 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이들 변인은 9.6%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연령이 적고 생리적, 안전의 욕구가 낮으며 미디어접촉도가 높은

사람은 의복의 원료나 재료를 실험적 재료로 인식하는 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감각적가치관에는 연령( $\beta=.118, p<.01$ )과 생리적 욕구( $\beta=.313, p<.01$ )가 정적인 영향을, 자기존중의 욕구( $\beta=-.206, p<.01$ )와 미의 욕구( $\beta=-.128, p<.05$ )가 부적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변인들은 14.3%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연령과 생리적 욕구가 높고 자기존중과 미의 욕구가 낮으면 따뜻함, 부드러움, 시원함, 촉감 등 의복의 착용에 있어서 편안함을 고려하는 가치관이 높았다.

종교적가치관에는 연령( $\beta=.142, p<.01$ ), 생리적 욕구( $\beta=.196, p<.01$ ), 안전의 욕구( $\beta=.161, p<.01$ )가 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자기존중의 욕구( $\beta=-.157, p<.01$ )가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10.9%였다. 따라서 연령이 많고 생리적, 안전의 욕구가 높고 자기존중의 욕구가 낮은 사람은 의복을 통해서 도덕적인 상징이나 종교적 의미를 나타내려는 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인구통계적 변인, 신체만족도, 욕구가 의복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이론적		심미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탐구적		감각적		종교적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연령							-.008	-.177**			-.004	-.100*	.005	.118*	.005	.142**
인구 통계적 변인																
결혼여부																
학력							-.102	-.094*	-.095	-.130**						
직업유무																
미디어접촉도			.050	.098*	-.102	-.206**	.094	.137**			.087	.147**				
신체만족도					-.047	-.101*										
생리적			-.096	-.191**	.118	.244**	-.236	-.354**			-.111	-.191**	.170	.313**	.101	.196**
안전											-.071	-.126*			.080	.161**
소속			-.077	-.166**												
욕구																
자기존중							.134	.194**					-.115	-.206**	-.083	-.157**
자아실현			.079	.155**												
인지	.166	.366**														
미	-.054	-.131**			-.074	-.167**	.093	.152**					-.064	-.128*		
R <sup>2</sup>	.099		.074		.136		.218		.017		.096		.143		.107	

\*: p<.05    \*\*: p<.01

## 5. 결론

본 연구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만족도, 욕구, 의복가치관의 차이를 알아보고, 인구통계적 변인, 신체만족도, 욕구의 변인이 의복가치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조사대상자는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20-50대 사이의 성인여성 436명이었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만족도는 학력을 제외한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으므로 인구통계적 변인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욕구는 결혼여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 미혼이나 기혼이냐에 따라서 욕구가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의복가치관은 수입과 직업유무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다른 변인에 비하여 연령, 학력, 미디어접촉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미디어접촉도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 미디어접촉도가 의복가치관에 많이 관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연령, 결혼여부, 학력, 수입, 직업유무, 미디어접촉도로 구성된 인구통계적 변인은 신체만족도, 욕구, 의복가치관에서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인구통계적 변인 중 연령, 학력, 미디어접촉도가 의복가치관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이 중 연령과 미디어접촉도는 다른 변인보다 많은 영향을 나타내었다. 연령이 낮으면 과시적이고 실험적인 가치관이 영향을 미치고, 연령이 높으면 보수적 성향이 강한 감각적가치관, 종교적가치관이 영향을 미쳤다. 이는 대체로 20대인 여대생은 탐구적가치관, 종교적가치관이 높고[22, 27], 연령이 높을수록 의복의 정숙성을 중시하며[6], 나이가 많으면 감각적인 가치관을 중요시한다는 이인자[21]의 연구를 뒷받침해 준다. 미디어접촉도는 심미적가치관, 정치적가치관, 탐구적가치관에서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으나 경제적가

치관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TV, 잡지, 영화, 인터넷 등 매스미디어가 소비성향과 구매욕구를 유발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의복을 선택하고 착용함에 있어 시간이나 돈을 절약하는 경제적가치관에는 부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체만족도는 경제적가치관만이 부적 영향을 주었다. 이는 신체에 불만족하는 부분을 의복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보고[45]의 복행동의 준거기준이 되는 의복가치관에 신체만족도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그다지 많은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신체만족도가 의복행동 및 외모관련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4, 16, 28, 29]과는 달리 의복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복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욕구는 사회적가치관을 제외한 의복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욕구의 하위변인 중 생리적 욕구와 미의 욕구는 의복가치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욕구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리적 욕구는 인구통계적 변인, 신체만족도, 욕구의 하위변인 중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자기존중의 욕구가 의복가치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며, 생리적 욕구는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한다고 보고한 강경자와 서영숙[3]의 견해와는 상반된다. 이러한 결과는 가치관의 형성이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은 물론 사회환경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대적 상황에서 오는 차이로 보여진다. 이상에서 인구통계적 변인, 신체만족도, 욕구는 의복가치관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도의 사회발전에 따라 가치관의 혼란과 함께 매스미디어의 급격한 보급에 힘입어 외모지상주의 현상이 크게 증대되는 시점이므로 바람직한 의복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이 요구된다. 이러한 올바른 의복가치관을 정립하게 함으로써 성인여성들이 지나친 의복

소비나 과도한 외모치장 및 의복행동을 지양하고 건전한 신체이미지를 지닐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자가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20-50대 여성으로 한정하여 편의추출을 하였으며, 조사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심리적 특성을 욕구와 신체만족도로 한정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의복가치관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인구통계적 변인, 신체만족도, 욕구가 의복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지만, 아직도 규명되지 않는 변인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한 개인의 다양한 심리적인 특성이나 사회문화적 환경과 관련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강경자 (1987). 여성의 기본욕구와 의복가치관의 상관연구, 경상대학교 논문집, 26.
- [2] 강경자 (1994). 의복의 정숙성·심미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II)-기본욕구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8(2), 180-188.
- [3] 강경자, 서영숙 (1989). Maslow의 기본욕구가 의복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3(1), 1-12.
- [4] 김아날리아, 이수경, 고애란 (2006). 남녀 프리틴 세대의 외모관리행동 영향요인-미디어관여, 신체만족,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0(11), 1538-1549.
- [5] 김용숙 (1990). 전북지역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만족도와 유행지향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4), 177-189.
- [6] 강혜원 (1979). 한복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심리학적 의복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7(3), 9-10.
- [7] 김희라 (1992). 신체만족도와 의상흥미도에 관한 연구-서울시기혼여성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박광희 (2000). 소비자의 가치와 의복쇼핑성향과의 관계 연구, 소비자학연구, 11(1), 49-58.
- [9] 박미애 (1987). 노년여성의 신체적 자아 및 생활만족도와 의복태도와의 관계-서울시내 노인학교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박혜원, 김현, 임숙자 (2005). 남녀 대학생의 가치관에 따른 의복행동 및 의복구매행동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9(1), 103-113.
- [11] 박혜정, 김혜정 (2004). 패션산업의 문화가치와 소비가치-마케팅과 의류학의 패션시스템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통합적 접근-, 한국의류학회지, 28(1), 1-11.
- [12] 송경자 (1998).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태도적, 지각적 신체이미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유경숙 (1984). 노년층 여성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이경아, 유태순 (1997). 물질적 가치 수준에 따른 의복의미와 의복가치관의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1(3), 524-535.
- [15] 이명희 (1982). 예의, 정숙성과 심미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6] 이명희 (2003). 청소년의 외모관련행동과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9/10), 1101-1111.
- [17] 이선재 (1983). 여자중고등학교학생의 의복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6(1), 39-49.

- [18] 이연희 (1995). 유행선도력과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이영윤, 강혜원 (1982).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관계, 한국의류학회지, 6(2), 17-24.
- [20] 이유선 (1998). 남녀 고등학생의 사회적 가치관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이인자 (1978). 주부들의 의상가치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연구보고, 2, 63-94.
- [22] 이희남 (1986). 여대생의 의복가치와 가정의 가치지향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2), 1-11.
- [23] 임경복 (2001). 소비자의 가치체계가 의복관여도와 쇼핑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7), 1321-1334.
- [24] 임숙자, 이미현, 이승희, 신호정 (2000). 바디 이미지, 교문사, 서울.
- [25] 전경란 (2002). 여성의 욕구, 자아존중감과 성형 및 의복태도의 관련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6] 전용민, 이명희 (2005).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와 의복 및 신체태도와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29(9/10), 1219-1229.
- [27] 정명선 (1984). 남녀대학생의 의복에 대한 정숙성과 의복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8(10), 85-94. 한국의류학회.
- [28] 정지영, 신혜원 (2007). 남녀 고등학생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심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및 의복추구혜택,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18(4), 13-23.
- [29] 조선명, 고애란 (200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청소년기 여학생의 연령 집단별 차이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7), 1227-1238.
- [30] Creekmore, A. M. (1963). Clothing Behavior & their Relationship to General Values & to the Striving for Basic Nee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31] Creekmore, A. M. (1966).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Michigan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Project, Michigan State University, 96-101.
- [32] Creekmore, A. M. (1974). Clothing Related to Body Satisfaction and Perceived Peer Sell, Michigan University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Research Report, 239, 13-15.
- [33] Dearborn, G. V. N. (1918). The Psychological of Clothes, Psychological Rewiew, New Jersery.
- [34] Ford, I. M. & Drake, M. F. (1982). Attitudes Toward Clothing, Body and Self: A Comparison of Two Group,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2), 189-196.
- [35] Hersey, P. & Blanchard, K. H. (1972).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Behavior, 2nd ed., Prentice-Hall Inc., New Zeszey; cited by 神山進 (1985). 被服心理學. 光生館, 東京.
- [36] Kaiser, S.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Macmillan, NewYork.
- [37] Lapitsky, M. (1961). Clothing Values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s and to Social Security and Insecur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38] Lennon, S. J., Rudd, N. A., Sloan, B. G., & Kim, J. S. (1999). Attitudes Toward Gender

- Roles, Self-Esteem, and Body Image: Application of a Mod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7(4), 191-202.
- [39] Mclean, F. P. (1978). *The Process of ageing Related to Body Cathexis and to the Clothing Satisfaction.* doctoral dissertation. Utah University.
- [40] Mahoney, E. R. & Finch, M. D. (1976). The Dimensionality of Body-cathexis, *Journal of Psychology*, 92(2), 277-279.
- [41] Maslow, A. H.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Harper & Bros, New York .
- [42] Rodgers, C. R. (1951). *Client-Centered Therapy*, Houghton Mifflin Co., New York.
- [43] Ryan, M. S. (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Holt, Rinehart & Winston Inc., New York.
- [44] Secord, P. F. & Jourard, S. M. (1953). The Appraisal of Body-cathexis: Body-cathexis and the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 343-347.
- [45] Sontag, M. S. & Schalter, J. D. (1982).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Evolution a Concep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2), 1-13.
- [46] Summer, E. D. (1957). *On the Relation of Manifest Needs to Personal Values, A Factor Analytic study Involving R and Q Techinqu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Psychology Wayne State University.

원고접수 : 07/10/29

수정접수 : 08/02/22

게재확정 : 08/02/25